

다들 기말 시험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죠? 공부에 지친 머리를 잠시 돌려보면서, 몇 가지 고민을 같이 해보기 위해 이 종강신문을 만들었습니다.

전남대학생행진(준)은 신자유주의에 맞서 평등, 자유, 연대의 원리로 대안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전남대 학생들입니다. 경쟁과 효율만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며, 우애롭게 살아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현실에 맞서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이미 하고 계셨거나, 앞으로 함께 이야기나누 보고 싶은 분들은 주저 말고 연락주세요.^^ (010-5669-0912, 유리)



한-미 FTA는 민주주의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Q&A로 풀어보는 한-미 FTA의 진실



■ 협상이 모두 끝난 것 아니었나요?

협상은 끝났지만 6월 말 양국 대통령의 공식 협약과, 이후 발효에 필요한 국회 비준이 남아있습니다.

■ 협정문이 공개되었다면요?

협상이 끝난 지 두 달 가까이 지난 5월 25일에야 협정문이 공개되었습니다. 물론 협정문의 알짜, 양해각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재협상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미국의 민주당-의회-행정부는 노동권과 환경권에 대한 재협상 요구를 할 것 같은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기준은 미국 또한 준수하고 있지 않으며,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완화가 이미 선결조건으로 포함된 것만 보아도 어딘가 이상한 요구입니다. 즉, 재협상은 민주당의 지

지 기반인 자동차 노조나 환경단체의 입장을 고려한 자신들의 '면피용 카드'에 불과합니다.

■ 그래도 세계적 추세라 어쩔 수 없나요?

미국과 협상을 하다가 중단, 연기 또는 결렬 상태에 있는 국가가 50개국에 넘습니다. 미국입장으로서 NAFTA 이후 최대의 FTA 협정인 것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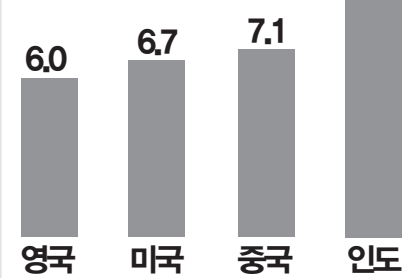
■ 농사를 많이 짓지 않는데, 농업을 포기하는 게 맞지 않나요?

안전한 먹거리가 사라지자 '웰빙'이란 말이 무섭게 번졌습니다. 식중독을 일으키고도 버젓이 장사를 하는 CJ같은 대기업이나, 유전자조작을 일삼는 카길/네슬레/몬산토 등 초국적 농기업에 식량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거대 유통/수입 자본에 의존하는 '농업포기정책'을 써 온 정부로서는 식품에 위험한 성분이 검출되는 사건이 터질 때

주요국 올 식품가격 상승률

(단위:%, 전년 동기비·4월 현재)

(자료:파이낸셜타임스)



마다 "검역을 강화하겠다"라는 단 한 마디밖에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럴수록 무슨 사건, 파동이 줄기는 커녕 언제 터질 지 몰라 불안해지는 것도 사실이죠.

또한 식량공급이 '국제적인 작황'에 더욱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 불안정해 집니다. 파인애플타임스에 따르면 가뭄 및 중국, 인도의 도시화로 인해 국제 식품가격을 좌우하는 밀, 보리, 우유, 코코아, 식용유 등 원료 농산물가격이 올해에만 20% 이상 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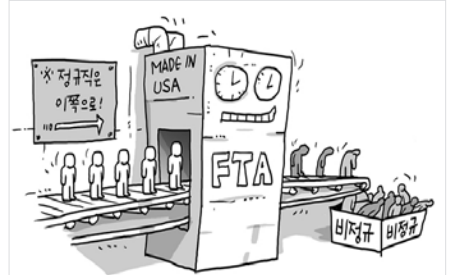
■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면요?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의 전략적 활용의 최우선으로 꼽은 것이 '경쟁에 의한 구조조정의 촉진'이며, 두 번째가 '국내기업들의 규제개선'입니다. 10년 전 IMF때부터 지겹게 추진했던 대량해고와 임금삭감,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구조조정'이 아직도 부족함이 봅니다. 문제는 FTA는 IMF보다 훨씬 그 규모가 훨씬 크다는 데 있습니다.

■ 투자증가, 교역량 증가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요?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스탠다드(!)한 자본들은 주식투자/금융거래 등의 방식을 띤 간접투자자로 노동자의 일자리 창출과는 전혀 무관한 투자로 일관하며, 고

용없는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몇 년 전, 외환은행-론스타 탈세행각을 떠올려보면 쉽게 알 수 있겠죠. 투기성 자본의 시세차익을 노린 외국자본의 투자로, 국내 은행에 투자하여 노동자들을 대량으로 정리하고 시커가며 수조원의 이익을 챙긴 외국의 투기자본은 세금 한푼 안 내고 또 다른 투자처로 줄행랑치고 있습니다.



■ FTA로 일자리가 창출되면 여성 고용기회가 늘어나는 것 아니요?

그렇습니다. 저임금 해고 0순위, 비정규직으로 말이죠. 비정규직의 70%가 여성노동자라는 사실은 일을 해도 빈곤한 여성의 삶을 잘 보여줍니다.

■ 미국과 경쟁함으로써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도입되지 않나요?

협정문을 보면 한국 내 의약품 가격은 '경쟁적 시장 도출가격'을 따르도록 되어있어 정부가 약값에 정책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신약의 특허기간을 연장하고 동등한 효과를 내는 복제약(제네릭)의 제

조를 막아, 효과가 좋은 의약품이 값싸게 공급될 수 있는 길을 원천봉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국적 제약기업의 반대에도 AIDS 관련 복제약을 정책적으로 보급한 브라질 정부의 사례와 대비됩니다. 결국, 한-미 FTA는 서민들의 의료 접근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 유럽연합(EU)과의 FTA는 얻는 것이 많을 거라는데?

이번에도 정부는 유럽이 이득보는 산업과 한국이 이득보는 산업의 규모가 비슷하다면서 눈 가리고 아웅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특히 농산물 수출 세계 1위 지역으로, 육류, 낙농, 과일의 경우 농업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EU FTA에서는 교육, 의료, 전기, 가스, 수도 등 사회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영역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하게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미 정부나 관련 연

구소, 재계는 유럽연합이 서비스 부문을 지목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를 계기로 서비스산업에 대한 또 한 번의 강력한 구조조정, 즉 대규모의 임금삭감 및 비정규직화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 사유화에 대해 살펴보면, 유럽의 초국적 물기업들은 오로지 자기 이윤을 위해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수십, 수 백 배의 물 가격 폭등을 일으켰습니다. 정부는 이런 결과를 외면한 채, 한국인들을 저임금 노동자로 만드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미 FTA의 최혜국 대우 조항은 한-EU FTA의 이런 효과를 극대화할 것입니다.



대안이 없는데 어찌죠? 우리의 연대가 곧 대안입니다

TV는 세상을 반영한다 하죠? 97년 IMF 이후 더욱 궁핍해진 삶을 카드빚으로 연명하게 만들면서 엄청나게 늘어난 카드사 광고 기억하나요? 하지만 이제 카드만 갖고 돌려막기는 역부족이니 "무이자, 무이자"를 외치는 사채광고까지 판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늘어나는 빚더미에 서민을 위한 대출을 늘린다고 했지만, 정작 대출을 받는 데에도 자격이 필요한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대출을 받아 하루를 연명할 지언정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살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빈곤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비정규직을 늘리는 한-미 FTA를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라"고 매번 으박질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외에

는 길이 없다하며 한-미 FTA 반대집회를 전면 불법화하고, 매일같이 "한-미 FTA 우리의 미래입니다" 광고를 내보내면서 말입니다.

저들이야말로 빈곤과 양극화가 심화된 삶을 강요하기 위해, 우리가 모여서 직접 대안을 찾는 것을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1987년, 저들이 대안이 없다고 말할 때, 수 백만명의 대중들은 거리에 나서서 연대하고 스스로 대안이 되었습니다. 한-미 FTA, 그리고 이후 수많은 FTA가 파괴하는 삶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할 때입니다. 더 이상 이런 삶이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며, 연대하면서, 거리로, 거리로 나섭시다.

비정규직은 한 번 쓰고 버리는 크리넥스가 아닙니다

7월 1일 시행을 앞둔 비정규직 “확산법”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작년 11월 30일 통과된 ‘비정규직 보호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계약해지 급증!

법안 시행을 앞두고 벌써부터 금융, 유통, 공공 분야의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계약해지가 잇따르고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안과 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교사들은 벌써 곳곳에서 150여명 가까이 계약해지를 당했고, 기간제 노동자로 18년 넘게 장기근무 해 온 25명의 강원도 공립유치원 전임교사들도 법 시행에 앞서 계약해지를 당했습니다. 얼마 전엔 뉴코아와 아일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계약해지 당했습니다.

금융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은행의 분리직군제 시행 이후로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엄청난 계약해지를 자행하고 있어 은행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초비상에 걸린 상황입니다.

병원에서도 산업인력공단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전환을 약속하였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얘기가 ‘보호’가 아닌 ‘확산’이라는 것이 만



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 = 비정규직 확산법. 그게 뭔데?

비정규직 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한 곳에서 일할 경우 ‘기간의 제한 없이’ 계약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과, 노동자가 용역업체에 고용되고 또한 기업에서는 용역업체와 계약하는 형태인 ‘파견’의 경우 기존의 허가된 26개 업종 대신 ‘대통령령이 정한 업종’에서 고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구 그대로 해석하자면 2년 이내라

는 제한 조항이 생김으로써 그 이상 상시적으로 일하는 업무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로는 2년이란 기간이 되면 해고한 다음,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얼마 후에 고용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비정규직으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 결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2년 마다 해고가 반복되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또한 중간 용역업체를 통해 고용되는 파견의 경우 현재 불과 26개 업종에만 허가되어 있음에도 불법파견이 성행하고 있는데, 이제는 대통령령으로 손쉽게 확대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파견의 경우 같은 일을 하더라도 중간에 용역업체가 있다보니, 용역업체가 중간에 임금을 상당량 빼가거나, 해고시 책임 소재를 직접고용주와 서로 떠넘기면서 발뺌하는 등 비정규직을 더욱 열악한 상황으로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사학위를 소지해도, 국가자격증을 획득해도 이제는 결코 정규직이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만든 사회적서비스 일자리조차 비정규직에 머물 수밖에 없도록 명시해놨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비정규직 중간착취의 천국이 됩니다.

‘비정규직 확산법’은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

IMF 구조조정과 비정규직의 대량 양산으로 빈곤과 양극화가 심화되었을 지 언정, 우리의 삶은 결코 나아질 수 없었습니다. 더 많은 착취와 더 많은 희생이 모두가 잘 살기 위한 것이었다는 기만에 더 이상 속을 수는 없습니다. 전체 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인 현실, 더 많은 사람들을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비정규확산법’을 반드시 폐기시킵시다!



광주, 여성노동자의 인권은 없다

광주시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90여 일의 싸움은 계속됩니다

광주시청이 새로 지어졌을 때부터 3년간 건물의 모든 청소를 해오던 5, 60대 여성노동자 23명이, 99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한꺼번에 해고되었습니다.

이유인즉슨, 시청에서는 용역업체 계약기간이 끝났고 이제부터 다른 용역업체를 이용할 것인데, 그 용역업체에 이력서 제출을 권장하였음에도 그러지 않

아 자연스럽게 해고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시청에서 “이력서를 제출하라”라는 말 한 마디 듣지 못했습니다. 시청은 그녀들을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므로(즉, 비정규직) 실사용자인 자신의 고용 의무를 회피하고 뻔뻔하게 거짓말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계약만료를 앞두고 고용을 보장해 줄 수 있는지 시장을 만나고 싶

다며 1년 넘게 애원하였지만, 단 한 번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해고되기 바로 전 날 밤, 시청공무원들은 전경의 비호 아래 이들을 폭력적으로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거리로 쫓겨난지 90여일이 된 지금까지도 그녀들은 매일 시청 앞에서 출퇴근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시청은 이 목소리를 듣기는 커녕, 관련 단체를 앞세워 시청 앞에 허위 집회 신고를 내버렸습니다.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청공무원들의 멸시까지 받았던 그녀들에게 보상은 못해줄망정, 이렇게 해고해버리는 경우가 어디있단 말입니까? 비정규직의 설움을 해결해야 할 시청은 거꾸로 ‘기업하기 좋은 광주’를 외치며 비정규직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정규직을 대량양산하게 될 비정규확산법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광주시청의 기만적인 모습에 문제제기합니다. 광주시청 비정규직노동자들

이 다시 시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싸웁시다.

함께 합시다!

시청비정규직 투쟁승리 총력투쟁
일시_ 6월 26일 ~ 6월 28일, 늦은 3시
장소_ 광주시청 앞

6월 투쟁승리!
전국동시다발 노동자대회
일시_ 6월 29일, 늦은 2시
장소_ 광주시청 앞

거리로 쫓겨나 90여일 동안 힘겹게 싸우고 있는 광주시청비정규직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녀들의 설움을 함께 나누고, 반드시 비정규확산법을 폐기하고 시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거리에서 만납시다!

홈페이지에 지지의 글도 올려주세요
<http://public.nodong.org/gj/zt>



[기고] 117주년 노동절 맞이 문화제

“나는 그곳에 다녀왔다”

전자컴퓨터공학부 서흥희

나는 그곳에 다녀왔다. 고려대에서 있었던 117주년 노동절 맞이 청년 학생 문화제를!

노동절 즉 메이데이는 매년 5월 1일 전 세계 노동자들이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며 투쟁하는 날이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여유가 생긴 나에게 4.30-메이데이에 함께 가보자는 친구의 제의는 기분 전환겸 겸사겸사 흥겨운 무박 2일의 짧은 여행이 시작되었다.

그곳에 온 모두가 오늘이 세상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남김없이 그들의 열정을 불태우는 모습을 보고 내가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자정이 넘은 시간에도 그들의 노래와 몸짓 공연

은 지칠 줄도, 멈출 줄도 모르는 듯 계속 이어졌다. 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니 단순히 ‘흥’만이 아니라, 의미가 담긴, 나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이들을 더불어 생각하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도 느낄 수 있었다.

잠은 고려대 학생회관에서 얇은 은박지를 위에서 잤다. 이불도 없고 베개도 없는 상황에서 새벽의 차가운 공기에 움추려야 했다. 따뜻하고 편안한 집 생각이 났다. 괜히 왔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어느새 나는 잠에 들었다. 그 추위에서도 잘 잘 수 있는 내가 대견스러웠다.

다음날은 고려대에서 대학로로 가기 위해서 300여 명의 학생들이 지하철을



이용하여 이동하였다. 지하철 내에서도 선전활동으로 구호를 외치는게 왠지 평소에는 할 수 없는 일들이라서 신이 났다. 그 속에서 나도 목소리 아끼지 않고 열심히 문혀갔다.

드디어 대학로에 도착! 이미 많은 노동자와 학생들이 와 있었다. 나도 그 사이에 당당히 서서 그들을 응원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장미를 위해서가 아니라 빵을 위해서 투쟁하는 그들의 모습에는 풀리지 않는 응어리가 있었다. 그들과 함께 우는 일 외에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다.

보통 이런 행사에 관심은 커녕 외면하기 쉽다. 이웃을 지키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임을 왜 깨닫지 못하는지, 흐릿한 기억 속에 독일 나치 수용소의 어느 목사의 시가 생각난다.

‘빵과 장미’는 세계 여성의 날의 기원이 된 1908년 뉴욕 방직공장 여성노동자들의 파업투쟁에서 나온 구호였다. “우리는 빵을 원한다. 그러나 장미도 원한다.” 빵은 생존권을, 장미는 여성으로서의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상징한다.



[기고] 혁명광주는 지금도 계속된다

도시빈민연구회 ‘청사’ 07 영민

내가 수시면접을 보기 위해 처음으로 전남대에 왔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사범대 1호관 건물에 그려진 5.18당시의 시민군의 벽화였다. 고등학생시절, 학교에서 받았던 5.18교육을 통해서 전남대가 5.18의 발원지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전남대에 와서 5.18이 남긴 역사의 흔적을 보게 되니 그 어느 때보다 감회가 남달랐다. 그리고 그 벽화 속에 플래카드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써져 있었다. ‘혁명광주는 지금도 계속된다.’

나는 그 문구가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27년 전, 이곳엔 ‘해방광주’가 있었다. 해방된 민중이 스스로 일으켰고, 스스로 해방시켰으며, 스스로 지켰고, 스스로 다스렸던 말 그대로의 ‘해방구’. 이곳엔 독재를 일삼던 부패한 정권도, 민주화를 요구하던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했던 군대도 없었다. 비록 일주일도 지속되지 못했지만 이곳엔 오로지 해방된 민중의 해방된 ‘민중자치구’만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나는 이런 생각도 들었다. 정

말로 혁명광주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가? 5.18만 되면 많은 정치인들이 표심을 얻기 위해 광주를 찾아오고 망월동 묘지를 참배하지만, 그들은 5.18을 그저 박물관 속에만 집어넣고 기념하려고만 하지 않는다. 그리고 많은 대중들에게서 5.18은 점점 잊히고 있지 않은가. 나는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적잖은 실망감을 느꼈다.

하지만 나의 이런 생각들을 모두 떨치게 할만한, 아주 뜻 깊은 사건이 다가왔다. 바로 ‘5.18문화제’였다. 전국의 각 대학에서 온 대학생들이 5.18혁명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광주순례단’으로써 광주를 직접 찾아온 것이다. 나도 ‘광주순례단준비단원’으로써 그들과 함께하였다.

우리는 먼저 시청비정규직노동자분들과 간단한 간담회를 가졌다. 그분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부당한 해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그분들의 투쟁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적잖은 분노를 느꼈다. 왜냐하면 그분들 모두 우리 어머니 또래의 나이의 여성노동자분들이시기 때문이었다. 우리 어머니 같은 분들이 그런 모욕과 처우를 당한다면 어떤 자식된 자로서 가만히 있겠는가. 그리고 그런 생각들은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과 같은 생각이었을 것이다. 나는 그분들이 꼭 투쟁에서 승리하셔서 다시 직장을 되찾으시길 기원하였다.

나는 비록 광주순례단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진 못했지만 현실에 분노하고, 슬픔을 느끼고, 그리고 변혁을 꿈꾸는 것은 모두가 한마음이었다. 문화제에서 부른 뜻 깊은 노래들과 타학교 학생들의 힘찬 몸짓들! 그리고 힘찬 구호와 변혁을 갈망하는 마음들! 혁명정신은 지금도 계속 계승되고 있었던 것이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받은 나는 자유발언대에 나와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이 문화제가, 바로 이곳이 ‘해방광주’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은 모두 해방광주의 해방된 민중입니다.”

‘혁명광주는 지금도 계속된다.’ 나는 이제 이 말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제 우리는 5.18혁명정신을 다음 세대로, 또 다음 세대로 계승해나가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한, 변혁을 위한 한걸음, 한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이다.

87년 6월 항쟁 이후 20년의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직선제 승리’가 아닌, ‘거리 위’의 기억입니다

축제가 되어버린 6월 항쟁

올해로 6월 항쟁이 20주년을 맞는다. 최루탄 자욱한 거리, ‘호헌철폐, 독재타도’의 함성, 넥타이 부대는 6월 항쟁을 기억하는 과거의 한 장면으로 남아 있다. 87년 6.29 선언은 민주주의 투쟁의 궤거로 기록되었고,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개혁을 향한 출발점으로 이해되었다.

그리고 20년 동안 대통령 직선제로 네 번의 대통령선거가 치러졌다. 참여정부 마지막 해에 맞는 6.10항쟁 20주년, 행정자치부는 10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차원의 첫 공식 기념식을 가졌다. 6.10항쟁을 기념하는 국가기념일이 지

정되었고, 갖가지 기념행사와 토론회 등 풍성한 축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민주주의 열망으로 거리에 나왔던 민중들도 과연 이 축제의 주인공일까?

6월 항쟁 그날 이후 20년의 현실

그 날 이후 민주주의 열망은 실현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국가폭력은 이제 좀 더 세련되게 차려입고 수많은 열사를 만들었다. 이후에 성장했다는 시민운동조차 명망 있는 몇몇 활동가의 활동이 있을 뿐, 대다수 시민들은 자기 삶에 관련된 문제를 직접 결정할 수 없었다.

이것은 여성의 날에 해고당한 광주시 정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90일 넘게



거리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는 현실,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시킬 비정규직 확산법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현실, 한 노동자가 몸에 신나를 끼었으며 한-미 FTA 반대를 외쳤지만 자유무역의 장밋빛 미래만을 제시하며 한-미 FTA 협상 이후 재빠르게 한-EU FTA를 추진하는 참여정부의 모습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7,80년대 이후 전세계적인 장기 불황

속에서, 살 길은 오직 신자유주의의 한 길 뿐이라는 강변에 IMF때에도 구조조정을 감내해왔다. 수 많은 민주주의 열망은 이제 삶의 조건을 감내하다가 선거 때만 한 표 찍는 것으로 완전히 정착되었다.

다시 쓰여져야 할 6월 항쟁

6월 항쟁 이후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7·8·9 노동자 대투쟁을 만들어낸 사실은 교과서에서조차 가르치지 않는다. 시대의 모순에 맞서 스스로의 권리를 거리 위에서 되찾고자 나선 경험들은, 오늘날 민주주의의 계승자임을 자처하는 이들에게 위협하기 때문이다.

무엇이 민주주의인가? 다시금 기억하고 써내려 가야 한다. 기념하는 6월 항쟁이 아니라, 너와 나의 권리가 맞닿는 거리의 축제를 만들어가자.

1학기 이렇게 살았습니다

좀 더 많은 일들을 같이 해보고 싶었던 아쉬움이...



3월 17일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 4년을 맞이하여, 아프간에서 죽은故윤창호 씨와 수없이 희생당한 이라크의 민중들을 추모하는 자리였습니다. 정부는 아프간, 이라크 파병도 모자라 레바논까지 파병을 앞두고 있습니다.

4월 20일은 기념하는 '장애인의 날'이 아닌,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장애인에 대한 시혜와 동정의 시선을 걷어내고, 이동하고, 일하고 배우고, 생존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는 자리였습니다.



5월 1일은 세계 노동절이었습니다. 1생 앞에서 지나가는 학우들과 한-미 FTA에 관한 OX 퀴즈를 하고, 광주 시청노동자들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이 자보를 시청노동자들에게 전달해드렸는데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5월 19일 80년 5월의 해방광주를 기억하며, 전국에서 모인 순례단과 한-미 FTA 폐기, 불안정노동 철폐를 기치로 선전전과 문화제를 진행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망월동 묘역을 함께 참배하면서 오늘날 열사정신 계승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5월 25일 87년 6월항쟁 이후 20년의 민주주의를 주제로 백승욱 교수 강연회를 용봉교지편집위원회와 주최했습니다. 이날 강연회에서는 87년 한국 정세가 7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와 동떨어져있지 않으며 그것이 민주주의의 파괴와 결부되어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절망의 빈곤, 희망의 연대
2007 여름 빈민현장활동

“숨은 빈곤 찾기”

6.30 ~ 7.7
장소 : 서울 곳곳

문의 : 빈곤사회연대 02-778-4017, 010-3423-68081

참가신청 : 빈곤사회연대 홈페이지 livingright.or.kr 또는 babo7737@hanmail.net

- 오리엔테이션 (6월 30일)
“숨은 빈곤을 찾아떠나는 히지라이커를 위한 안내서”
- “비닐하우스 촌에도 사람이 살고 있어요” - 비닐하우스 촌 주민과 연대하기
- “사회서비스 시장화 반대! 노동빈곤 반대!”
- 최저생계비 현실화, 의료급여 개악저지, 사회서비스 확충전환
-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전략 반대, 비정규 계약 법안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
- “누구나 인간답게 살 권리” - 노숙인의 삶과 쉼집 문제 들여다보기
- “하이 서울? 공공 서울!”
- 서울시 노점특별관리 대책/경제문화도시 마케팅 프로젝트 반대 및 서울시 규약 집중행동
- 해단식

주관: 2007 여름빈민현장활동 기획단
주최: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 노숙인복지와 인권을살전하는사람들, 민중복지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인천 대학생 사회연대

여름방학 함께해요♪

뜨거운 별에도 열심히 살아봐요! (문의: 010-5669-0912, 유리)

◀ 여름 빈민현장활동 “숨은 빈곤 찾기”

빈곤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신자유주의, 우리 삶의 곳곳에 숨어있는 빈곤을 찾고, 빈곤의 절망을 넘어 '연대'라는 희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2007 여름 빈민현장활동을 함께 떠납시다!

- 언제? 6월 30일(일) ~ 7월 7일(일) (7박 8일)
- 어디서? 서울 곳곳에서

■ 반신자유주의 선봉대

언론과 여론을 들쭉이게 했던 한-미 FTA 협상, 평택 전쟁기지 건설, 그리고 지난 해 누구의 동의도 없이 국회에 의해 날치기 강행처리된 비정규직 확산법. 신자유주의의 속에 파탄난 민중의 삶을 폭로하고 그 권리들을 요구해 나가며 우리의 대안을 찾아 갑시다! 2007년 여름, 전국을 순회하며 뜨겁게 달궈진 분노를 모아냅시다!

- 언제? 8월 10일(금) ~ 19일(일) (9박 10일)
- 어디서? 전국 곳곳에서

■ 전남대 학술네트워크(가칭)

대안세계화를 향한 첫 걸음,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모임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같이 공부하고 토론해 봅시다. 경제학 비판, 한국 근현대사, 신자유주의와 페미니즘까지 다양한 주제로 서로의 궁금증을 채워주며 대중 강연도 준비해봅시다.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연락주세요!

